

# “여한 없이 부르고 미련 없이 가야죠”

‘은퇴 선언’ 임재범 KSPOTV 40주년 콘서트

1986년 밴드 시나위 1집 활동 데뷔  
‘비상’·‘너를 위해’ 등 다수 히트곡  
전국 투어 마무리 동시 가수 은퇴  
최취영 문광부 장관, 공로패 수여

“저는 이전에도 임재범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임재범이고, 앞으로 기억 속에 남을 저 또한 임재범입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가수 임재범이 전국투어 무대에서 팬들을 향해 담담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임재범은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TV에서 열린 데뷔 40주년 전국투어 ‘나는 임재범이다’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투어를 끝으로 저는 무대에서 물러난다”며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많이 고맙고 결정한 것이라 편안히 떠나보내 주셨으면 한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추억을 쌓았으니 편히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밴드 시나위 1집 활동으로 데뷔한 임재범은 호소력 있는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비상’, ‘너를 위해’, ‘이밤이 지나면’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임재범은 지난해 9월 신곡 ‘인사’를 발표하고 11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몇 달 뒤인 지난 4일 이번 전국 투어를 끝으로 가요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공연은 임재범이 은퇴 의사를 밝힌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콘서트였다. 공연장에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임재범의 무대를 지켜보기 위해 소속사 블루씨드엔터테인먼트 추산 9000

명의 관객이 입장했다.  
임재범은 첫 곡 ‘내가 견뎌온 날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며 공연의 막을 열었다. 다음 무대 ‘이 또한 지나가리라’에서는 ‘항상 네가 있었어’라는 가사를 ‘항상 여러분이 있었어’로 바꿔 부른 뒤 객석을 향해 손을 뻗으며 호응을 유도했다.  
임재범은 “은퇴에 얽힌 자조지종을 말하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저를 사랑한 여러분의 마음도 아플 것”이라며 “오늘은 제가 가수로 생활하며 맞이한 4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 섭섭한 마음은 접어두고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낙인’과 ‘위로’에서는 힘 있고 짙은 목소리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고음 구간에서는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는 특유의 습관을 보여줬다.  
다만 이날 임재범은 고음 구간에서 여러 차례 불안한 음정 처리로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대표곡 ‘너를 위해’ 무대에서는 2절 후렴구 일부를 소화하지 않고 마이크를 객석에 건네는 모습이었다.  
임재범은 “은퇴가 가까워져인지 목 컨디션이 오늘도 (좋지 않다)”며 “(무대를 위해) 있는 약, 없는 약을 때려 넣었다.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종지 않은 컨디션에도 임재범은 ‘비상’, ‘사랑’ 등의 무대에서 깊게 내리누르는 저음으로 애절한 감정을 전달하며 인상을 남겼다. 그의 감정 표현이 돋보인 무대는 ‘고해’였다. 객석에 등을 돌리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무대를 시작한 임재범은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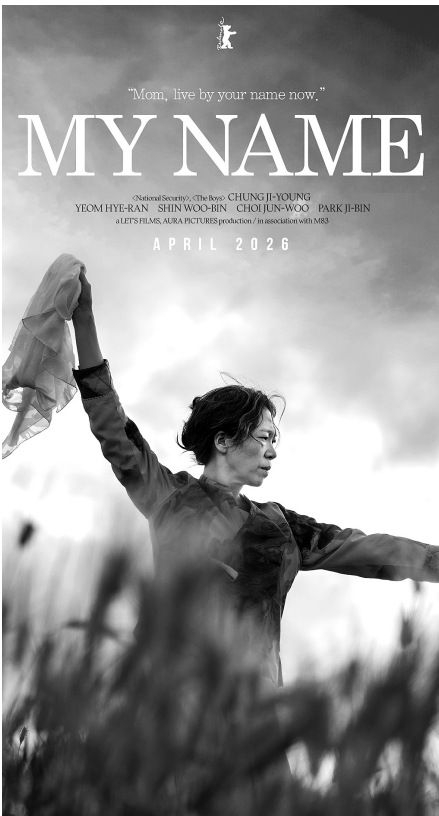
소  
절  
부터 거  
친 목소리  
로 음을 길게 늘  
여 부르며 감정을 끝  
어올렸다. 이어 후렴에서는 울

부짖는 목소리로 간절한 감정을 폭발시켰다.  
임재범은 이날 은퇴를 결심한 배경에 관해 설명하는 대신 무대가 끝날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노래로 짧은 ‘인사’를 들려주며 공연을 마쳤다.  
“첫 공연 당시 술에 취한 미군 3명 앞에서 노래하며 가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전부 여러분 덕분입니다. 긴 시간 제 노래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바람이 부는 날씨에 공연장을 찾은 팬들은 임재범의 은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전국투어 중인 가수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문체부는 최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TV(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데뷔 40주년 전국투어 ‘나는 임재범이다’ 현장을 찾아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 정지영 감독 ‘내 이름은’ 베를린영화제 초청 쾌거

배우 염혜란 주연 제주 4·3 사건 소재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염혜란이 주연한 영화 ‘내 이름은’이 다음 달 열리는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받았다고 최근 제작사 넷츠필름과 아우라픽처스가 밝혔다.  
포럼 부문은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색채를 가진 작품을 선보이는 섹션으로 2024년 영화 ‘파묘’가 초청됐다.  
‘내 이름은’은 이름을 버리고 싶어하는 18세 소년과 이름을 지키고 싶어하는 ‘어망’ (어머니의 제주 방언)의 이야기를 그렸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다.



베를린영화제는 “비극적인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를 세대를 넘어 섬세하게 비추며, 오랜 침묵을 깨는 작업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염혜란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기억 속 진실을 마주하는 어망 역을 맡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소년들’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제주 4.3 평화재단 시나리오 대상을 받았고, 제주 도민 등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다.  
영화는 베를린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뒤 오는 4월 국내에서 개봉한다.  
유재인 감독의 장편 데뷔 영화 ‘지우러 가는 길’은 ‘제너레이션 14플러스’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제너레이션’은 아동·청소년의 삶과 성장을 다룬 작품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일부는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 해당 부문 초청을 받았고 김보라 감독의 ‘별새’, 김혜영 감독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수상했다.  
‘지우러 가는 길’은 담임 선생님과 비밀 연애를 한 고등학교 윤지가 불법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한 여정을 담은 영화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졸업 작품이다. 지난해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커린츠상’을 받고 주연 이지원이 경쟁 부문에서 ‘배우상’을 차지했다.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책임자 세바스티안 마트는 “‘지우러 가는 길’은 여성 간의 우정과 자기주장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며 “권력 남용과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제를 우아하고도 잘 구축된 영화적 세계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빛나게 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시즌3 나온다

요리 장르 무관 4인 1조 식당 대결...참가자 모집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이하 흑백요리사)이 시즌3 제작을 확정 지었다.  
넷플릭스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흑백요리사’ 시즌3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전으로 펼쳐진 시즌1·2와 달리, 시즌3는 식당 간 대결을 다룬다.  
이에 따라 동일 업장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는 요리사들이 4인 1조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요리 장르는 무관하다.  
개인은 물론, 한 업장 소속이 아닌 지인 혹은 임의로 구성된 팀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점이 다른 동일 업장 소속일 경우 한 팀을 이뤄 지원할 수 있다.

‘흑백요리사’는 미슐랭 등을 통해 공인받은 스타 셰프 ‘백수재’들과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은 뛰어난 요리사 ‘흑수재’가 요리 대결을 벌이는 넷플릭스 요리지널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4년 공개된 시즌1은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말부터 공개된 시즌2도 2주 연속 비영어 쇼 1위를 기록하며 시리즈 흥행을 이어갔다.  
시즌3 제작은 시즌1과 시즌2의 성공을 이끈 스튜디오 슬랩의 김은지 PD와 모은설 작가가 다시 맡는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보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